

제목 : 레위기 6. 속죄제 - 사함의 신비

본문 : 레위기 4장 13-21, / 참고 - 레위기 6:24-30 /

(레 4:13)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레 4:14)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속죄제를 이해하기 위한 정리

속죄를 상징하는 단어들 ...

(출 21:30) 만일 그에게 속죄금(**קֶדֶשׁ**, 코페르:몸값, 속전, 마을, 삼살나무, 역청)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창 6:14]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출 25:17) 순금으로 속죄소(**קֹדֶשׁ**, 캠포레트:속죄소 mercy seat)를 만들되 같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속죄제의 종류 ...

신분	제물	피의 처리	소각대상	남은고기
(대)제사장	수소	내성소/향단	기름 두콩팔 간엽	밖에서 소각
회중				제사장 먹음
족장	숫염소	마당/번제단	번제 비둘기	
평민	암양소 혹은 암양			
빈민	비둘기 두 마리(속죄제+번제)	없음	한 움큼	제사장 먹음
극빈	밀가루 1/10에바			

속죄의 형태들 ...

(레 1:4)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קָדַשׁ**, 카파르: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속죄하다, 역청으로 위에 칠하다)가 될 것이라

(레 4:20) 그 송아지를 속죄제(**זֶבַח**, 핫타아: 죄, 유죄, 죄의 형벌,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קָדַשׁ**, 카파르)한즉 그들이 사함(**סָלַח**, 살라흐: 용서하다, 사면하다)을 받으리라 (반복-레 4:26,31,35)

속죄제가 다루는 것은 ... 죄와 허물

(레 4: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레 4:3)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פָּשָׁע**, 하타)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레 4:13)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חַטָּאת**, 아삼: 죄를 범하다, 죄가 있다, 유죄로 판결되다, 형벌을 당하다)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반복 - 레 4:22[족장], 27[평민의 한사람])

- (레 5:1)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 (레 5:2)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 (레 5:3)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 (레 5:4)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속죄제의 전제 사항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음 ...

- (레 4:14)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들여
- (레 4:23)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 (레 4:28)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죄와 허물에 대한 자복 ...

- (레 5:5)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 (레 5:6)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 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들여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속죄제를 위한 규례

속죄제물을 드리는 절차- 피와 기름의 처리와 관련하여

- (레 4:15)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 (레 4:16)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 (레 4:17)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회막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 (레 4:18)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 (레 4:19)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 (레 4:21)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름 같이 **불사르**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 (레 4:24)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 (레 4:25)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 (레 4:26)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 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르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 (레 4:7)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속죄제물을 드리는 절차 -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속죄제물에 대하여

- (레 6:25)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레 6:26)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 뜰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남은 속죄제물의 고기를 다루는 규례 - 제사장이 주의해야할 사항들

- (레 6:27)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레 6:28)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레 6:29)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레 6:30)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속죄제의 의미와 적용을 위하여

속죄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대하여 - 속죄 메카니즘의 신비

제물의 피를 바른 곳과 뿌린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런데 사함(참고 레 4:20,26,31,35 / 5:10,13)을 입고 정결해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 (레 5:10)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 5:13)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레 12:8)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ἁγιάζω, 타헤르: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하리라

속죄제물 보다 중요한 것은? - 속죄 메카니즘의 신비 : 원칙을 뛰어넘는 사랑

- (레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 17:14)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레 5:7)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레 5:11)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레 5:12)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와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속죄제와 관련된 중요 단어 사전

כָּפַר(3722, 카파르) -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속죄하다, 역청으로 위에 칠하다

카파르(동사)는 기본어근이며, (a) '덮다, 가리다 cover, 진정시키다, 달래다 pacify, 화해하다 make reconciliation', (b) '역청으로 위에 칠하다 cover over with pitch'를 의미한다.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약 100회 나오며, 주로 피엘형으로 사용되었으며, 칼 1회, 푸알 5회, 니팔 1회, 히트파엘 5회 사용되었다.

1. 피엘형에서

- (a) '덮다, 가리다, 진정시키다, 달래다, 화해하다'(창 32:21, 사 47:11, 잠 16:14).
- (b) '덮다, 가리다', 따라서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속죄하다'(BDB)(출 32:30, 민 17:11-12, 민 25:13, 신 32:43, 겔 16:63 등).

2. 푸알형에서 - '덮어지다, 가리워지다, 속죄되다'(사 6:7, 사 22:14, 사 27:9, 잠 16:6, 민 35:33).

3. 히트파엘형에서

- (a) '덮어지다, 가리워지다', 삼상 3:14에서 엘리 집의 죄악이 제물이나 예물로 덮어질(속죄될) 수 없다고 한다.

4. 니팔형에서

- (a) '덮어지다, 가리워지다'. 신 21:8에서 '피가 덮어질' 것이라고 한다.

참조 - 코페르('속량, 속전')의 의미에서부터 카파르의 의미가 보다 더 잘 해결된다. 이 단어의 의미는 '대용물을 드림으로 속죄하다'라는 뜻이다. 이 용법의 대부분은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는 의식과 관련되며, 이때 이 단어들은 경배하는 자를 "속량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레위기에서 49회의 실례는 이런 의미로 쓰이며 다른 의미는 입증되지 않는다. 이 동사는 '선물로 달래다'라는 관련 의미가 나타나는 창 32:20, 잠 16:14, 사 28:18을 제외하고는 항상 죄 혹은 불경한 것의 제거와 관련하여 사용된다. 이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화해의 신학을 적절하게 예증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특별히 피로 상징화되는 희생 동물의 생명이 예배자의 생명의 대용에서 요구된다. 구약성경의 신학에서 동물의 희생 제사는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죄없는 생명이 죄있는 생물을 대신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 상징은 예를 드리는 자가 자기 희생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동물에 대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참조: 레 16:21, 레 1:4, 레 4:4 등). 그런 후 그 동물을 죽이거나 혹은 속죄의 염소로 내보내는 행위에 의하여 명백하게 드러난다.(R. L. Hartley).

5. 칼형에서(1회)에서 '역청으로 위에 칠하다'.

창 6:14에서 방주의 방수에 대해 사용되었다: "너는 갓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참조: BDB; TWOT).

כָּפַר(3724, 코페르) 몸값, 속전, 마을, 삼살나무, 역청

코페르(명남)는 카파르(כָּפַר, 3722)에서 유래했으며, 구약성경에서 17회 나온다. 이 단어는 다음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a) '몸값, 속전, 뇌물'.

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반 세겔의 돈을 '속전'으로 성소에 바치기로 되어 있었다(출 30:12). 하나님에게 있어서 애굽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속량물'로 주어졌다(사 43:3). '속량'의 단어는 시 49:7에서 '구속'(파다)이라는 단어와 비교된다. 사람을 살인한 죄를 범한 자는 죽어야 하며 그 생명을 대신할 속량물은 없다고 경고한다(신 35:31).

② 이 단어는 또한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 악의의 목적으로 상대방의 호감을 사는 '뇌물'의 의미로 사용된다(삼상 12:3).

- (b) '시골, 마을'. 삼상 6:18. (c) '영청'. 창 6:14. (d) '삼살나무'. 아 1:14, 아 4:13. (참조: BDB; TWOT).

כַּפֹּרֶת(3727, 캅포레트) 속죄소 mercy seat

캅포레트(명여)는 카파르(כָּפַר, 3722)에서 유래했으며, '속죄소 mercy seat'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어근이 지적하는 바, '자비' mercy와 관계가 없으며, 또한 어떤 '자리' seat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속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27회 나온다.

속죄소는 성막의 지성소에 안치된 언약궤의 상부를 덮는 덮개를 가리키며, 1년에 1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자기의 죄를 위해,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속죄를 하는 장소이다.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양단에 마주하여 날개를 편 한 쌍의 '그룹'이 설치되었다(출 25:17, 출 25:18, 출 25:19, 출 25:20). 그 두 그룹 사이가 하나님의 보좌이며, 거기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기로 한 것이다(레 25:22, 레 30:6, 민 7:89).

70인역본에서 캅포레트에 해당하는 헬라어 힐라스테리온(2435)은 '화해시키는 것, 속죄하는 것, 화해의 수단, 속죄소'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헬라어는 롬 3:25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나타내는 중요한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같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속죄소라는 상징은 히브리 종교의 심오한 신학 사상을 나타낸다. 여기서 1년 1회, 속죄일의 행사가 행해졌다(레 16장).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상징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해 속죄가 완성된 것을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다(히 9:1-12). (참조: BD; BDB; TWOT).

𐤒𐤕𐤓(5545, 살라흐) - 용서하다, 사면하다

살라흐(동사)는 기본어근이며, '용서하다, 사면하다 forgive, pardon'을 의미한다.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46회 나오며, 칼형과 니팔형으로만 사용되었다.

살라흐는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에 관하여 사용되었다. 살라흐는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하여 사죄하고 용서하시는 것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그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는 것에 대하여는 결코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동일한 어근이 우가릿어(VT 19: no. 1757)와 아카드어에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형태에 관한 어떤 분명한 관계에 대하여 고려할 것이 없다. 아카드어 살라흐는 제의와 의학문서에서 "뿌린다 sprinkle"를 의미한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복음주의적인 어조 중 하나는 이 단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와 사면이다. 이 단어는 또한 큰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용서의 본질이 무엇인가? 히브리서는 구약의 용서가 효과가 없고 불가능이었다는 것을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서술하는 것 같이 보인다(히 9:9, 히 10:4).

해답은 분명한 것이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무지몽매한 순간에 저지른 두 가지 죄, 즉 금송아지 사건과 가데스바네아에서의 불평 때에도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친히 선언하신다(출 34:9, 민 14:19-20).

둘째로, 모세의 율법을 기초로 하는 실재적 속죄와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도전적이며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의 죄를 제외한 모든 죄에 대해서 유효한 것이었다(민 15:30-33). 속죄가 될 때 죄인의 죄가 용서 받는다는 주장은 되풀이 되었다(레 4:20, 레 4:26, 레 4:31, 레 4:35, 레 5:10, 레 5:13, 레 5:16, 레 5:18, 레 5:26, 레 19:22). 거짓말, 절도, 거짓 맹세, 사기(레 6:1-7)와 같은 모든 죄나 "여호와와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한"(레 4:2)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죄들은 제외되기 보다는 "그릇 범죄"(sins of ignorance)와 더불어 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규례(provision)에 특별히 포함되어 있다(민 15:25, 민 15:26, 민 15:28). 마치 이러한 점을 강조하는 것처럼 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가 속죄 받았음을 되풀이하여 기록되었다(레 16:21, 레 16:30, 레 16:32, 레 16:34). 그러나 개개 이스라엘인들은 진실한 고백에서 당연히 '겸손해야'("괴롭게 하고") 하였다(레 16:29, 레 16:31). 이러한 용서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인도할 때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게 되도록 기도한 그러한 종류의 용서이다(왕상 8:30, 왕상 8:34, 왕상 8:39, 왕상 8:50와 대하 6장에 있는 그 병행 구절). 아모스는 다니엘과 같이(암 9:19), 유다를 위하여 용서를 간구하였다(암 7:2). 그러나 때때로 이스라엘은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신 29:19, 애 3:42).

이러한 공개적인 용서의 제안이 너무 고무적이었기 때문에 이사야(사 55:7)는 구원으로 초대하는 마음으로 이 제안을 크게 보도하였다. 그들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이사야의 청중들은 사람들을 미워하는 데서 나온 모든 생각을 잊어버리고 서로 용서해야 한다.

구약성경에서의 용서의 경험은, 비록 객관적으로 그 용서의 기초와 근거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을지라도 인격적인 효험이 있었다. 용서에 대하여 사용된 다른 용어들은 죄에 대한 기억을 없애거나 도말하는 죄에 대한 기록을 덮거나 감추는, 죄를 제거하거나 일소하는, 죄를 관대히 봐주는, 대속물을 근거로 하여 용서하는 관념을 강조한다.

예레미야서에 있는 세 가지 본문, 렘 31:34, 렘 33:8, 렘 50:20은 새 언약과 우리 주님의 최후 재림과 관련된 우리 주님의 미래의 용서를 공포한다. (참조: W. C. KAISER; BDB).

𐤀𐤏(5771, 아온) - 불법, 부정, 죄악, 죄의 벌

아온(명남)은 아와(𐤀𐤕, 5753)에서 유래했으며, '불법, 부정, 죄악, 사악, 유죄, 죄의 벌(징계)'을 의미한다.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약 230회 나온다.

명사 아온은 집합명사이다. 예컨대 하나님은 아모리인의 범죄, 타락에 대해 말씀하신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단수)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아니라"(창 15:16).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당신은 "내 죄(단수)를 생각나게"하려고 왔다고 불평한다(왕상 17:18). 따라서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은 관용구에서 나타난다. '아온을 지다'(창 4:13, 출 34:7, 호 14:3, 시 85:3), '아온을 제거하다(하필형)'(속 3:4), '아온을 갚다'(출 20:5) 등. 이러한 '전체'라는 개념은 집단의 죄뿐만 아니라 개인의 죄와 연관하여서도 나타난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복수)를 지고"(레 16:22);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단수)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6).

더욱이 위의 언급들이 가리켜주는 바와 같이 이 단어는 행위 및 행위의 결과, 범죄 및 범죄의 형벌 모두를 나타낸다. 양 개념이 모두 나타나지만 때로는 행위('죄')에 초점이 주어지고, 또 때로는 범죄의 결과('형벌')에, 때로는 행위와 그 결과 사이의 상황('죄의식' guilt)에 초점이 주어진다. 형벌을 요하는 범죄에 초점이 주어지는 실례: "이 '죄악' sin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홀연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사 30:13, 참조: 겔 18:30, 겔 44:12, 호 5:5, 욥 31:11, 욥 31:28). 형벌에 강조점이 주어지는 예: "일어나라...그렇지 않으면 네가 성읍의 '형벌' 가운데서 소멸되리라"(참조: 렘 51:7, 시 39:12, 시 106:43, 욥 13:26, 욥 19:29, 스 9:7). '죄의식'(guilt)에 강조점이 주어지는 예: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삼상 25:24). 다른 많은 실례들에 대해서는 아래를 보라.

'행위로서의 죄'라는 의미와 '형벌'이라는 의미 사이의 현저한 양면적 의미는 구약성경의 사상에서 죄와 그 형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과 같이 근본적으로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구약성경에서 인간의 행동과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질서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전제된다. 이러한 연관성은 "삶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라고 불리워졌다(Von Rad, G).

어근 하태(죄)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종합적' 개념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민 32:23을 보라: "너희가 만일 그 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나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두 번째 나타나는 이 어근의 명사형은 행위에 대한 '형벌'을 나타낸다(참조: 민 12:11). 따라서 죄는 개인과 혹은 공동체를 멸망시키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며 근절되어야만 한다(B. K. W.).

아온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의 특성도 아니고(출 20:5, 출 20:6, 출 34:7), 인간의 속성과 행동(그러한 행동에 수반하는 결과를 포함하여)의 저항할 수 없는 특성이다.

아온은 삼상 20:1, 삼상 20:8, 삼하 3:8, 느 4:5, 시 51:2에서 여러 종류의 시민 생활 혹은 사회적(규칙) 위반을 지칭하고, 수 22:17, 삼상 3:13-14에서는 제의적인 (규율) 위반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집합 명사 혹은 유사 추상명사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과거의 범죄의 총합을 나타내는데, 이에 대한 실례는 너무 많아서 모두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민 14:34, 삼상 25:24, 삼하 22:24, 왕상 17:18, 스 9:6, 욥 13-26장, 사 1:4, 렘 11:10가 그 예이다.

어떤 구절에서는 아온의 성질과 내적 근원에 강조점이 주어진다.

욥 15:4-5에서 아온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폐하는 것 등과 관련되어 있다.

반면에 시 78:37-38에서 아온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확고 부동하지 않음과 결합되어 있으며 렘 14:10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방황하기를 좋아하였다 라는 진술과 관련되어 있다.

아온은 간음(민 5:31) 및 우상 숭배(호 5:5, 렘 16:10-11)와 관련된다. 이러한 은유에서는 위반하는 행동과 그 결과인 더럽힘 모두가 묘사된다.

아온의 다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소외(alienation, 레 26:40, 사 59:2, 사 1:4), 그리고 부정(시 51:2, H4)으로 나타난다.

죄책감(guilt)은 내적 인간에 대한 아온의 주요한 결과다. 이 요소는 과거 범죄에 대한 총합을 나타내는 아온의 기능과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BDB는 죄책감의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실례를 30여회 이상 열거한다(p. 731).

아온은 그 결과가 내적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외에도 가문, 지파, 이스라엘 민족, 열방 및 자연에도 영향을 끼친다. 가문에 대하여, 친숙한 진술은 출 20:5, 신 5:9에서 발견된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은 가문이나 지파의 개개인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내리는 벌로 집중할 수 있다(레 5:17, 레 18:25, 민 5:31, 삼상 25:24, 삼하 14:9, 시 106:43, 렘 36:31). 아온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형벌을 면할 수 없게 한다(레 26:39, 스 9:7, 스 9:13, 시 107:17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있는 많은 실례). 어떤 의미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들 임무의 거룩과 성소의 거룩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형벌의 위험을 떠 맡았다(출 28:38, 출 28:43, 레 22:16, 민 18:1, 민 18:23).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 그 재난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온의 결과로 인식되었다(애 4:6, 애 4:13, 애 4:22, 겔 39:23, 단 9:13, 단 9:16).

아온에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인간의 탄원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 선포는 아온을 벗어날 길을 보여준다.

인간은 아온을 깨닫고 고백해야 한다(창 44:16, 레 16:21, 느 9:2, 시 32:5, 시 38:18, H19). 그리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구해야 한다(출 34:9, 민 14:19, 욥 7:21, 시 25:11). 인간은 또한 그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겔 18:30, 겔 36:31). 형벌을 대신 받을 대체물이 제공된다(레 16:22, 사 53:5-6, 사 53:11, 겔 4:4-6).

가장 중요한 것은 아온을 제거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다. 이것은 약속되고 실제로 선포된다(민 14:18, 시 65:3, H4, 시 78:38, 시 103:3, 잠 16:6, 사 6:7, 렘 32:18, 단 9:24, 미 7:18-19, 슥 3:4, 슥 3:9, 참조: 다윗의 입맞춤에 의한 용서의 행동, 삼하 14:32). 세 군데에서는 하나님의 깨끗케 하시는 행동이 강조되어 있다(시 51:4, 렘 33:8, 겔 36:33). (참조: C. SCHULTZ; BDB).